

창작 문화예술 거점 ‘문예담터’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 도약

임실군, 문화예술인 창작·교류 지원 복합문화공간 준공식 가져

임실군에 문화예술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여주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인 ‘문예담터’가 준공됐다.

군은 지난 1일 심 민 군수를 비롯해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박정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 및 류관송 경찰서장과 유효선 임실교육장, 문화예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예담터’ 준공식을 갖고, 개관을 축하했다.

문예담터는 임실군 임실을 이도리 517-5번지(임실공설운동장 옆)에 총면적 733.45㎡, 2층 규모로 군비 12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원, 총 31억원의 예산으로 신축됐다.

이곳에는 교육실과 연습실, 사무공간, 소규모 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었으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교류를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 거점이자 생활 속 문화 참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곳에서는 미술과 음악 등 다양한



임실군은 지난 1일 심 민 군수를 비롯해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박정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 및 류관송 경찰서장과 유효선 임실교육장, 문화예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예담터’ 준공식을 갖고, 개관을 축하했다.

장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고 세대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작품 전시와 공연,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지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크게 넓힐 것이다.

최근 임실군은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예술 공연지원과 문화예술 교육,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군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문예담터 준공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군민 누구나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플랫폼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심 민 군수는 “문예담터는 주민 스스로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고, 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공간”이라며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곳에서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선정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올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국내 그린바이오 미생물 산업화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지정을 통해 기업들은 산업용 미생물을 보다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바이오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진흥원은 이를 기념해 지난 1일 현판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그동안 진흥원은 ‘순창을 발효미생물 글로벌 총가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미생물 자원의 체계적인 수집·축산·식품 관련 시료로부터 6만 5천여 점의 미생물 자원을 분리·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특성 평가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진흥원은 국내 발효미생물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친화적인 그린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토종 발효미생물을 활용한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울러, 농촌진흥청은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 대학, 민간연구소 등 총 78개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산업형 민간기관 2곳을 신규로 지정했다. 진흥원이 그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의미는 더욱 커졌다.

정도연 원장은 “유용미생물은행이 그린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거점으로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와 산업화를 아우르는 지원을 통해 미생물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국내 발효미생물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친화적인 그린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토종 발효미생물을 활용한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남원농기센터, 고품질 참깨 신품종 수확 시작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고품질 참깨 신품종 조기 확산단지 조성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장에서 기계화로 적합한 하니울과 초다수성 영웅 품종 수확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 보급한 참깨 ‘영웅’과 ‘하니울’ 품종을 보급받아 급년에 고품질 참깨 신품종 조기 확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1억을 투입해 11ha에 재배를 추진, 수확량 증가 및 내병성 강화로 농업인 만족이 매우 높았다.

‘영웅’ 품종 수확량은 1,000㎡당 158kg로 지금까지 개발된 참깨 품종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기존 품종 ‘건백’보다 28% 많은 양이며 역병, 시들음병, 흰가루병, 잎마름병 등에 모두 강하고 재배 안정성이 높아 5월 중순에서 6월 상순에 파종하면 8월 중순에서 9월 상순에 수확할 수 있다.

‘하니울’ 품종은 종자불임성(내탈립성)이 좋아 맨 위쪽 꼬투리가 다 익어 벌어져도 낱알이 떨어지지 않아 기계 수확이 가능한 품종으로, 보통형 품바인으로 베기와 낱알 딸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노동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 선정

남원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 사업’에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남원·진안·임실 3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 충전 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해 충전 시설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식이다. 남원시는 부지 제공과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선정된 민간 충전 사업자는 국비 지원을 받아 남원시

내 충전 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청,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생활 거점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급속·완속 충전기를 포함해 20기 이상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선정으로 남원·진안·임실을 아우르는 동부권 충전 시설 인프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생활권 주민들의 충전 불편 해소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신청·접수 받는다

남원시는 ‘2026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9월 19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이 지원사업은 인구 감소지역 청년들에게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온실신축, 에너지 시설, ICT 장비 및 재배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남원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총 29억원(7개소)을 지원하고 올해에도 예산 12억원(4개소)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 청년 중 전북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예정)자와 시군 우수 청년 농업인으로 개소당 3억8백만원을 지원, 사업 희망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9월 19일까지 제출하고 서류 심사 및 심의회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극단적 기후변화에 스마트팜은 연중 균일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이라며, 다각적인 스마트팜 정책으로 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전개

임실군이 지난 1일 임실시장 일원에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화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임실시장 상인회(회장 김성곤), 시장 상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특히, 캠페인과 동시에 리유저블 장비구니 500개를 현장에서 배부해 홍보 효과를 더욱 상승시켰다.

군은 이번 캠페인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이제 그만!’이라는 메시지를 집중 홍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축제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임실=전홍영 기자

순창군 선수단, 전북체전 결단식

종합 7위 목표 다짐

순창군 선수단이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출전을 앞두고 9월 1일 결단식을 가졌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극장에서 진행된 이번 결단식은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하고 대회에서의 선전을 다짐하는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순창군체육회(회장 손춘호)가 주최한 결단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손춘



석 순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오은미 도의원 등 내빈들과 체육회 임원, 종목별 회장 감독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결단식은 개회, 내빈 소개, 국민의례에 이어 출전 현황 보고, 단기 수역,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선수단은 기념 촬영을 하며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이번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고창군 일원에서 펼쳐지며, 총 39개 종목(정식 37, 시범 2)이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순창군은 이 중 33개 종목에 출전하며, 임원 80명, 코치와 주무 80명, 학생선수 60명, 일반선수 380명 등 총 600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을 파견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방지설비 개선 완료

남원시는 공공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추진하였던 악취방지설비 개선사업을 8월 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설비의 파손에 따른 악취 누설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 12억 원(특별조정교부금 5억, 남원시 7억 원)이 투입되었다. 악취방지시설이 완료 후 측정된 악취

배출 농도는 배출허용기준(배출구 기준 500배 이하)의 절반 수준인 300배 이하로 떨어졌다.

새로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은 남원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악품으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수용성 악취 물질을 직접 태우는 RTO(슬러지처리시설의 최종 공정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포함된 가스를 고온

으로 연소 처리해 유기성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 방식으로 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시설물 내부 잔류 악취 물질을 처리하는 악품세정탑 및 미생물세정탑 시설도 정비해 악취 제거 효율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남원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